

결핵인물열전 ④

## 항결핵운동의 거목 이재규(李在珪)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신언서판을 갖춘 이재규는 초대 교통요양원장을 시작으로 일생을 결핵퇴치에 헌신한 거목이다. 결핵협회 창립, 결핵예방법 제정, 결핵연구원 발족은 그의 열정과 집념의 소산이었다.

### 6.25전쟁중 도미 유학

우리나라 결핵사, 특히 민간 항결핵운동을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재규다.

필자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6.25전 마산 가포리의 사나토룸에서였다.

어느 겨울날 사나토룸 현관에서 당시 고문으로 와 있던 미국인 의사 스미스(Roy K. Smith)와 인사를 나누는 험성한 중년신사 한 사람을 보고 참 멋있구나, 생각했는데 그가 바로 이재규였다.

예로부터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언서판(身言書判)을 말하는데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수려하여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미남자였다.

그리고 언변도 좋고 문학적 소질이 있어 글도 잘 썼는데 초창기 “보건세계”의 고정 필자기도 했다.

이재규는 1911년 7월 26일 경북 상주군 화동면 선교리 118번지에서 당시 학자였던 이세식(李世植)의 2남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그의 선조가 사화 때문에 상주로 낙향 온신한 때문이었다.

어릴 적에 부친을 따라 상경한 이재규는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2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의사는 일본인 밑에서 일하는 직업보다 독립적이며 일본인의 멸시를 받지 않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의 길을 택한 것이었다.

1936년 23세 때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자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거친 뒤 부안에서 잠시 개업을 했다가 춘천도립병원을 거쳐 1938년 함경북도 청진 철도병원 촉탁을 겸하여 그곳에서 2년간 개업을 했다.

그는 그의 부모를 서울 근교의 덕소(德沼)에 정착케 하고 생활근거가 될 수 있는 논밭을 마련해 주었다.

1943년 청진생활을 청산하고 상경하여 서울여의전의 방사선과 강사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강의를 맡았지만 전쟁 말기라 미비한 것이 많아 경성제대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8.15광복 후 대학으로 승격한 서울여의대의 조교수로 있다가 1948년 2월 8일 마산교통요양원의 초대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때부터 결핵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1941년 마산철도요양소로 출발했으나 광복이 되자 일본 등지로부터 귀국한 귀한동포의 수용소가 되어버린 것을 다른 장소로 이전케 하고 요양원 재건에 착수하여, 1949년 4월 10일 마침내 정식 개원했다.

병원의 규모는 150병상이었고 철도직원과 그 가족환자가 주 대상이었다.

이재규는 6.25전쟁중 미국의 선진 결핵학을 공부하기 위해 도미, 1950년 12월부터 1년간 하버드대학, 트루도우결핵학교, 미국결핵협회 등에서 결핵을 연구하고 특히 미국결핵협회에서는 민간항결핵운동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후일 대한결핵협회 창립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 결핵예방법 제정에 앞장

1952년 11월 마산교통요양원장직을 사임한 그는 바로 서울여의대의 후신인 수도의대에 복귀하였으며 뜻을 같이하는 유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결핵협회 조직에 착수했다.

한응수(韓膺洙), 윤유선(尹裕善), 송호성(宋浩星)과 함께 창립준비위원으로서 정관초안을 만들고 마침내 1953년 11월 6일 대한결핵협회를 창립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했다.

이재규는 줄곧 이사로 재임하면서 1955년, 57년, 67년 세 차례 부회장을 역임했고 1966년에는 송호성 김기호 등과 함께 결핵전문의 제도를 신설하는 데 힘썼다.

1967년에는 72명의 결핵전문의가 탄생됨으로써 결핵의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규가 남긴 업적 중 결핵협회 창립 외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누가 뭐래도 결핵예방법 제정과 결핵연구원 설치다.

평소 결핵예방법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그는 당시 회장 정구충(鄭球忠)과 임직원 전체의 적극적 성원 아래 결핵예방법 추진위원장으로 동문서주한 결과 1966년 12월 21일 국회본회의에서 전문 45조 부칙으로 된 결핵예방법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되었으며 1968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었다.

주요골자는 신생아에 대한 1년 이내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근로자와 학생의 정기건강진단을 규정했다.

그리고 결핵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크리스마스 썰 모금허가를 기부금품 금지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 허가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획기적 쾌거였다.

이재규는 1969년 제 10대 회장에 취임하자 부회장인 권이혁(權彝赫)을 결핵연구회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결핵연구회 설립을 적극 추진했다.

1970년 1월 30일 마침내 총무로 3가 59-11 결핵협회 현관에서 결핵연구회 현관식이 거행되었다.

결핵협회의 창립, 결핵예방법의 제정, 결핵연구원의 발족 등 3대 업적은 이재규가 주동이 되어 추진한 집념의 소산이며 우리나라 결핵퇴치운동사에 길이 남을 공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결핵퇴치에 공헌한 업적을 기려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그에게 수여했다.

### 폭넓은 사회봉사 활동

그는 20여 년간 라이온스 클럽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는데 1973년부터 2년간 국제라이온스협회 309-A지구 12대 총재 재임중에는 캐나다의 라이온스 총재인 하워드 로워와 친분을 맺고 캐나다 국기에 그려져 있는 단

풍 수겨 매플 나무의 종자를 항공편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보급했다.

또한 일본의 라이온스 클럽과 교류하여 벚꽃 등 북해도산 묘목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 때 들어온 여러 수종의 묘목과 씨앗들이 지금은 모두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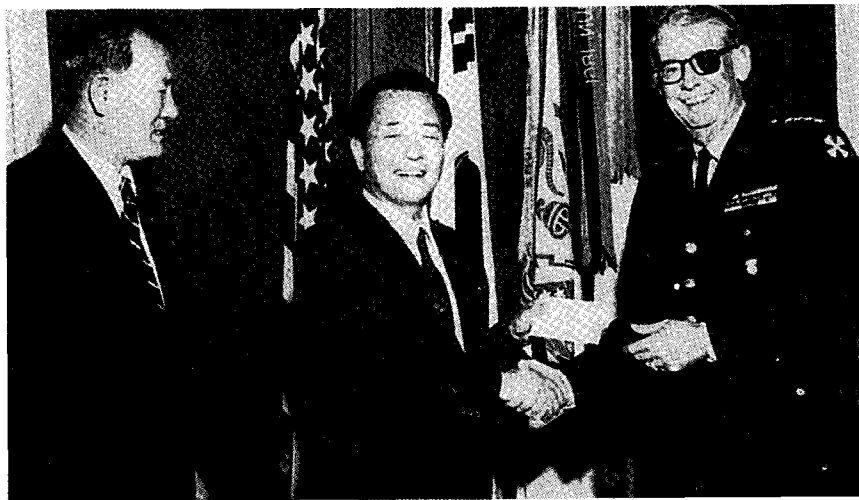
한편 부인 양순담(楊順淡)여사는 1967년부터 15년간 한국걸스카우트 총재로서 우리나라 소녀들의 밝고 건강한 생활을 이끌어 내는 데 헌신한 여성운동가이기도 하다.

그 옛날 원동교회 야외 예배회에서 남들이 버리고 간 휴지를 한데 모아 불사르던 이화여고생, 그 총명하고 알뜰한 소녀의 품행에 반한 청년의사 이재규의 프로포즈로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재규는 남을 칭찬하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남의 단점을 캐려 하지 않고 장점을 확대하여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매너에 익숙했다.

그리고 그는 결핵계의 선배를 짝듯이 모실 줄 알았다.

앞서 말한 닥터 스미스, 흉부외과 개척자며 2대회장을 지낸 고병간(高秉幹), 공화당 증진으로서 결핵예방법 국회통과에 애쓴 김성진(金晟鎭), 자신이 부회장일 때 회장으로 모신 정구충(鄭求忠)에 대해



1970년 미8군 사령관으로 부터 크리스마스 쌀 성금을 전달받고 있는 이재규 결핵협회장(기운데)과, 손정신 사무총장(좌)

세배는 물론 평상시에도 경의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의료계 외에 정재계,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과 폭넓은 교분을 가졌으며 특히 문화계 인사들과 가깝게 지냈다. 그의 서구적인 품모와 세련된 매너로 해서 여성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었다.

그는 이 세상의 아무리 추한 사물도 그 천진한 심성으로 여과시켜 아름다움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관조하는 심미주의 자였다.

지금은 낯선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명동 중심지의 이재규결핵의원, 사방 벽면이 온통 패넌트와 기념패 등으로 뒤덮힌 병원 응접실로 그를 찾아가면 아무리 바빠도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손을 잡고 반가워하면서 손수 커피를 끓여

주곤 했다.

그의 취향이 물씬 풍기던 그 방의 커피향기와 그 손길은 지금도 내 가슴에 파사롭게 스며 온다.

그는 1980년 69세를 일기로 필드에서 운동을 하다가 심장발작으로 급서했다. 슬하에는 2남2녀를 두었는데 장남 영구(英求)는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다가 병사했다.

2남 응구(雄求)는 미국에서 심장내과 전문의 자격을 따고 연세대 교수로 있다가 개원 준비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랜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다.

부인 양순담 여사도 곧 아들의 뒤를 따라 타계했다. 교수인 장녀 리라와 차녀 선자(善子)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 ♣